

연패 끊은 KIA 다시 2연승 질주... '기록의 시리즈'

6일 키움에 5-3 승 위닝시리즈
김도현 QS·김규성 8회 결승타

양현종, 리그 통산 2번째 180승
최형우, 역대 4번째 400홈런



KIA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중 경기를 '기록의 시리즈'로 만들며 위닝시리즈를 확보했다. 양현종이 KBO리그 두 번째 개인 통산 180승 고지에 올랐고, 최형우는 역대 네 번째로 개인 통산 400홈런을 달성했다.

KIA는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 2차전에서 5-3으로 이겼다. 이번 승리로 KIA는 16승 18패·승률 0.471로 SSG와 공동 6위에 올라섰다.

KIA는 선취점을 먼저 뽑으며 기선을 잡았다. 1회초 무사 만루 상황에서 김선빈의 희생플라이로 1-0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곧바로 역전을 허용했다. 1회말 선발 김도현의 제구가 흔들리며 두 명의

타자를 연달아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했고, 1사 2·3루 상황에서 푸이그에게 1타점 내야땅볼과 김태진에게 1타점 적시타를 내줘 1-2가 됐다.

KIA는 다시 재역전에 성공했다. 2회초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1사 만루 상황을 만들었고, 위즈덤이 좌중간을 가로지르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 3-2로 승부를 뒤집었



최형우

양현종

다.

KIA는 5회말 카디네스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아 동점을 허용했지만, '악속의 8회'에 2점을 뽑으며 승기를 잡았다. 무사 1·2루 상황에서 대타 김규성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렸고, 키움 투수 윤현의 폭투 때 한준수가 전력질주하며 홈을 밟아 5-3으로 다시 앞서 나갔다. 이후 실점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며 2연승을 챙겼다.

이날 선발 김도현은 6이닝 동안 4피안타 3실점(3자책) 3사구 5탈삼진으로 호투를 펼쳐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7회부터 투입된 전상현(0.1이닝 무실점)~이준영(0.2이닝 무실점)~조상우(1이닝 무실점)~정해영(1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진 불펜진들은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승리를 지켰다.

KIA는 이번 키움과의 원정 1·2차전을 모두 이겨 위닝 시리즈 확보와 함께 투타 베테랑인 양현종과 최형우가 나란히 대기록을 세워 기쁨이 두배가 됐다.

앞서 전날 열린 키움과의 원정 1차전 선발로 나선 '대투수' 양현종은 6이닝 동안 24명의 타자를 상대로 5피안타 1실점 2사구 5탈삼진으로 호투하며 팀의 13-1 대

승을 이끌었다. 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수확하면서 KBO리그 역대 2번째 개인 통산 180승 고지를 밟았다. 1호는 송진우(은퇴·210승)다.

2007년 데뷔한 양현종은 당초 '180승' 기록을 지난해 달성할 것으로 보였으나 승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점차 미뤄졌다.

지난해 9월 통산 179승을 기록한 뒤 잔여 경기 3경기에서도 승수를 챙기지 못했던 양현종은 올시즌 6경기에서 한 경기를 제외하곤 평균자책 5를 훌쩍 넘기며 부진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화전에서 6이닝 6피안타 2볼넷 3실점(1자책) 5탈삼진으로 호투를 기록했으나 야수들의 실책이 이어지며 승리를 날리기도 했지만 이날 대기록을 작성했다.

'해결사' 최형우도 기록을 써 내려갔다. 5일 6회초 무사 1·3루 상황에서 좌완 투수 윤석원의 시속 141km의 초구에 방망이를 휘둘러 비거리 130m의 대형 홈런을 터뜨리며 최정(497개), 이승엽(467개), 박병호(412개)에 이어 KBO리그에서 역대 네 번째로 400홈런 고지를 밟았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ilbo.com

광주광역시청 김수린, 종별양궁선수권서 '금빛 시위'

광주은행 최미선 개인종합 銀

광주광역시청 양궁팀 김수린이 제59회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대회에서 금빛 시위를 당겼다.

2025 여자 양궁 국가대표 김수린은 지난 2일 경북 예천진호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제59회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거리별 경기 30m에서 356점을 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수린은 50m에서는 335점을 획득, 박예지(대전시체육회·337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최미선은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최미선은 여일반 개인종합에서 1359점을 기록, 유수정(현대백화점·1363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60m에서도 348점을 쏘 유수정(349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순천대 김서하는 여자대학부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김서하는 여자대학부 70m에서 337점으로 염혜정(경희대·337점)과 공동 1위



김수린

최미선

를 차지한 데 이어 50m에서 338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서하는 또 탁해운·김가는·서보은과 함께 단체전에서도 함께 4046점을 기록,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서하는 30m(353점)와 개인종합(1366점)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여대 오예진은 여대부 50m에서 335점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광주체고 출신 조수혜(한국체대)는 개인종합(1369점)과 30m(355점)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0m(335점)와 단체전(4031점)에서는 각각 은메달을, 60m(344점)에선 동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서석중 검도, 용인대총장기 단체·개인전 석권

광주서석중학교 검도부가 제28회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중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을 석권하며 남중부 전국 최강 실력을 과시했다.

서석중 검도부는 지난 1~3일 충남 청양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서석중은 남중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가야중과 광명중, 원통중을 차례로 이기고 4강에 진출한 서석중은 상인천중과 2-2로 비긴 뒤 대표전에 나선 육하준이 상대팀 박효관에 머리치기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성남중을 상대로 선봉 권민수, 2위 문윤, 중견 윤찬희, 부장 허경도

선수가 내리 이겨 4-0으로 이기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육하준(3년)은 남중부 개인전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4강전에서 한서준(부원중)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육하준은 이상엽(동평중)에게 먼저 실점했으나 특기인 머리치기로 연속 득점하며 2-1로 역전 우승을 일궜다.

윤찬희(3년)는 4강전에서 아쉽게 제3위에 머물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정동진 광주서석중 교장은 "이달 말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광역시청 고승환·이재성·강다슬, 亞육상선수권 국대 발탁

男200m·400m계주·女400m계주
27~31일 구미서 45개 종목 경쟁

광주광역시청 육상팀 고승환(28)과 이재성(24), 강다슬(33)이 2025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고승환은 남자 200m와 400m계주, 이재성은 남자 400m계주, 강다슬은 여자 400m계주에 출전한다.

2025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45개 종목에 45개국 1200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대한육상연맹은 지난달 30일 경기력향상위원회 열고 이번 대회에 나설 대표선수단 108명을 확정했다. 지난달 21~23일 진행된 대표선발전에서 개인 종목 1위를 선발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메달 경쟁력 등을 고려해 선수를 추가 확정했다.

광주시청 고승환과 이재성, 강다슬은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선수로 특히 고승환과 이재성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400m계주 동메달리스트다.

고승환은 현재 남자400m계주 한국신기록 주인공이기도 하다. 고승환은 지난해 6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국영(광주시청), 이시몬(안양시청), 이용문(서천군청)과 호흡을 맞춰 38초



광주시청 육상팀 고승환(왼쪽부터), 이재성, 강다슬.

68로 10년 만에 한국신기록(종전 38초 74)을 갈아치웠다.

이재성은 400m계주에서 고승환과 호흡을 맞춘다.

이재성은 지난해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 남자계주 금메달리스트다. 한국 체대 시절 대학부를 휩쓸고 광주시청에 입단한 이재성은 성인무대에 적응하며 김국영, 고승환 등과 호흡을 맞추는 중이다.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계주는 고승환과 이재성, 나마디조엘진(예천군청), 서민준(서천군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이 한팀으로 나선다.

한국 여자 100m 대표주자 강다슬은 400m계주 선수로 발탁됐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강다슬은 대표선발

전 여자부 200m에서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육상 1600m 혼성 계주 한국신기록을 세우기도 한 강다슬은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 여자 400m계주에서 김다은·김소은(가평군청), 김예영(시흥시청), 이은빈(해남군청)과 한팀으로 호흡을 맞춘다.

한편 대한육상연맹은 높이뛰기 이상혁(용인시청) 등 남자 43명, 해머던지기 김태희(익산시청) 등 여자 41명, 고교 유망주 7명(남자 4명, 여자 3명), 코치진 17명 등 108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한국은 2023년 방콕 아시아선수권에서 금메달 1개(남자 높이뛰기 이상혁), 동메달 2개(남자 400m 계주, 남자 세단뛰기 김장우)를 수확했다.

최동환 기자

진도군청 육상팀, 실업육상선수권 중·장거리 종목 선전

금 2·은 1·동 4 등 7개 메달

진도군청 육상팀이 '제29회 KTFL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 중·장거리 종목에서 우수 성적을 거뒀다.

6일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진도군청 육상팀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전남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 2, 은 1, 동 4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남보하나가 여자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10분 29초 65의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종전 10분37초41)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다.

엄태건은 남자일반부 800m에서 1분 51초8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유정은 여자일반부 1만m 경기에서

36분 41초 1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주니는 남자일반부 1만m에서 31분1초48의 기록으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서빈은 여자일반부 800m와 1500m 두 종목에서 각각 2분 14초 09, 4분 33초 62의 기록으로 동메달 2개를 거머쥐었다.

진도군청은 남자 6000m 계주와 여자 3200m 계주에서도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